

21세기 대학의 새로운 진로

앞으로 4년만 지나면 대망의 21세기가 전개된다. 새로운 세기가 전개된다는 것은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등의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임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대학의 경우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급격하고 근원적인 변모의 길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학은 사회의 어떤 영역보다도 변화의 물결에 무심했던 보수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대학도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으로 편입되고 자본주의적인 상호경쟁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교육개방이라는 초미의 현안과 2002년에는 대학 정원과 수험생 숫자가 거의 일 대 일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하여 앞으로 대학이 학생을 찾아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대학과 대학의 운영 주체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학의 발전 방향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다. 최근에 각 대학이 교육과정의 대대적인 개편, 학부제 실시, 특성화 방안의 마련, 기부금의 확보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은, 요컨대 대학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능동적인 의욕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교협이 대학평가, 몇몇 저널리즘의 공개적인 대학 순위 조사도 대학의 격심한 경쟁체제의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디자인대학을 패션문화의 중심지인 압구정동에 신설하고, 국내 대학 최초로 여성학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우리 대학 나름의 특성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대학의 변모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대학에서도 경영 마인드 개념의 도입이나 효과적인 관리체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물론 학술적인 연륜이나 학문의 깊이도 대학을 대학답게 하는 무척이나 소중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그 학술의 깊이와 연구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은 대학의 연구환경이며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학문에 대한 열정만으로 탁월한 업적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실이 되었다.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환경과 지원을 이제 대학이 어떻게



동덕여대 총장 조 원 영

학생과 교수들에게 마련해주느냐의 문제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모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명제가 극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각 대학이 대학 제도와 환경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의 길을 밝어나갈 것임이 분명한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저널리즘의 대학을 바라보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각 대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무조건 규모가 큰 대학이나 국립대학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관행을 떨치고 자기 나름의 특성화 방안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실천해나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재정이 튼튼한 큰 대학 위주의 타성적인 지원은 대학사회의 새로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대학의 개별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 학교만이 담당할 수 있는 특수한 교육부문이 개성적으로 완비된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적·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대학을 진정으로 살리는 값진 지원이 될 것이다. 저널리즘 또한 전통적인 기준에 의거한 일률적인 대학평가보다는 대학이 얼마나 특성화되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정밀한 비교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보도와 순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교협 역시 단순히 대학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능동적인 의식 변화일 것이다. 대학을 한가로운 직장쯤으로 생각하는 교수, 새로운 지식의 탐구와 지적인 열정에 게으른 학생, 대학을 사유 재산으로만 생각하는 경영진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정보와 학술탐구에 민감한 교수집단, 신선한 지식의 섭렵과 교양의 탐구에 청춘을 바치는 학생들, 대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놓는 운영진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의 대학은 21세기 문화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